

민족과 국민 사이: 1940년의 체육행사에서 나타나는 만주국, 조선인, 공동체

이 동 진 경북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dojile@hanmail.net)

1. 서 론

구기 종목으로 대표되는 근대 체육은 19세기 영국의 공립학교에서 주로 발명되어(최초의 근대적인 구기 종목인 럭비는 그 발명자인 럭비 학교의 이름에서 명명되었다), 학교 체육으로 발전한 후에 다시 클럽을 통해서 사회 체육으로 발전하였다.¹⁾ 처음 체육은 엘리트 활동으로 시작되었다가 노동자를 국민으로 통합하는 과정에서 노동자들의 클럽 참가가 허용되었다. 이후 체육(아마추어로서 경기에 참가하는 것과 프로 경기를 관람하는 것)은 노동자들의 여가 활동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게 되었다.²⁾

체육 활동을 통해서 체력 향상을 도모하는 것은 비단 개인의 관심사일 뿐 아니라 국가의 관심사이기도 했다. 뿐만 아니라 체육은 신체적·정신적·사회적 규율을 함양하는 수단이기도 했다. 곧 체육은 군사훈련, 운동장은 연병

장, 체육정신(athleticism)은 상무정신의 모형으로 작용했다.³⁾

운동 경기에 참가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운동 경기를 관전하는 것도 근대적인 경험이었다. 말하면 전문적인 선수의 경기(선수권전) 또는 아마추어 선수의 경기(운동회)를 관람(응원)한다고 하는 근대적인 경험은 상상의 공동체라는 이데올로기적·정치적 효과로서 나타났다. 이렇게 해서 체육 행사는 국민 형성을 촉진하는 활동으로 작용했다. 이미 19세기 후반에는 고대 아테네에서 개최된 올림픽이 그리스민족이라는 공동체를 상상하게 하는 데 중요한 작용을 했다는 것이 널리 알려졌다.⁴⁾ 이러한 사상의 영향을 받아서 1896년에 아테네에서 근대 올림픽이 개최되었다. 1908년에 개최된 제4회 런던대회에서는 7만명의 관중과 영국 왕실이 지켜보는 가운데 선수들이 국기를 앞세우고 개막 행진을 했다.⁵⁾ 이와 같이 올림픽경기는 세

논문접수일: 2004년 6월 18일 게재확정일: 2004년 6월 25일

1) 中村敏雄 外, 『스포츠헬론』,大修館書店, 1976, 60-77쪽.

2) 中村敏雄 外, 전게서, 78-87쪽.

3) 우리나라에서 최초의 운동회는 1897년 6월 16일 영어학교의 대운동회였다. 대한체육회, 전게서, 39쪽. 이 운동회는 훈련원(현 서울운동장)에서 개최되었으며 총을 맨 학생들이 연병장에서 행진을 한 후에 경기가 시작되었다. 경기 종목은 육상과 여흥적인 것으로서 사람 둘이 세다리 달리기(2인3각), 동아줄잡기(줄달리기, 12인조) 등이 있었다. 각종 경기가 끝난 후에는 학생들의 군사훈련연주가 있는 후 대청 앞에서 수상식이 거행되었다. 학생들은 황제폐하를 위하여 만세삼창을 불렀고 학교선생님과 내빈들을 위하여 갓을 벗고서 천세를 불렀다.

4) 1881년 독일의 구르티우스가 올림픽아 유적을 발굴한 후에 “고대 올림픽 제전이야말로 그리스 문화의 근원이었다”는 견해를 발표했다.

계라는 공동체를 상상하기에 앞서 국가라는 공동체를 상상하게 하는 이데올로기적·정치적 효과를 낳았다.⁶⁾

운동 경기는 최고의 구경거리를 제공해 주었고 따라서 최다의 인파가 몰렸다.⁷⁾ 이 때문에 운동 경기는 국가가 자신을 드러내기에 가장 좋은 무대를 제공해 주었다. 이러한 국가 의례를 통해서 운동 경기는 경기장에 모인 선수와 관중으로 하여금 일체감을 느끼게 하고 그들의 배후에 있는 공동체를 상상할 수 있게 했다.

운동 경기의 이데올로기적·정치적 효과는 운동장과 관중석이라는 ‘재장(presence)’을 통해서만 나타나는 것은 아니었다. 아직 대중매체가 발달하지 못한-그러나 대중교통은 더 발달한- 상황에서 운동 경기를 직접 목격하는 것이 중요하기는 했다. 이 때문에 여기저기서 빈번하게 운동 경기가 개최되었다. 그런데 운동 경기가 구경거리였기 때문에 그것은 목격자와 대중매체를 통해서 전파될 가치가 있었다. 그리고 목격자나 대중매체로부터 운동 경기 소식을 듣거나 본 사람들도 경기장에 참가한 사람들과 일체감을 느끼면서 ‘재장’의 의식을 가지게 되었다. 이 ‘재장’ 의식은 앤더슨이 말하는 ‘동시성’의 의식과 같은 의미이다.

앤더슨은 현재가 과거·미래와 단절되어 있는 현대적인 시간관에서는 새로운 ‘동시성’의 개념이 필요했고 이를 위해 ‘동시성’을 공유한다고 상상되는 공동체인 민족이 출현하게 된 것이라고 주장하고, 상상의 공동체인 민족을

재현하는 매체로서 소설과 신문을 들었다.⁸⁾ 이 글에서는 이러한 앤더슨의 논지를 받아들여 체육 행사에 대한 신문의 보도를 통해서 ‘동시성’을 공유한다고 상상되는 공동체가 어떻게 나타나는가를 살펴보려고 한다.

이를 위해서 이 글에서 선택한 사례는 1940년 6월 거의 동시에 개최된 세 개의 체육 행사에서 나타나는 만주국 조선인의 상상의 공동체이다. 이 사례를 선택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1940년에 체육 행사는 상상의 공동체를 창출하는 데서 매우 중요했다. 체육 행사는 최고의 인파가 몰리는 구경거리이고 축제로서 ‘재장’ 또는 ‘동시성’을 의식하게, 다시 말하면 재장과 동시성의 주체인 바로 그 공동체를 상상하게 했다. 둘째, 만주국은 일본제국의 그림자 국가였다. 이는 만주국이 독립적인 실체가 아니지만 그렇다고 일본제국 자체도 아니라는 의미이다. 다시 말하면 일본제국은 만주국을 국가로 포장하여야 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만주국은 국가 의례를 남발하게 되었다.⁹⁾ 셋째, 만주국 조선인은 국가와 국민이라는 점에서 이중적으로 허구적인 존재였다. 이 때문에 만주국 조선인은 허구적인 국가이지만 허구적인 국민은 아닌 중국인파도, 그리고 허구적인 국가는 아니지만 허구적인 국민인 일본인파도 달랐다. 결국 만주국에서 조선인은 체육 행사에서 상상되는 공동체가 중국인과 일본인보다 더욱 분열적으로 나타났다.

이하 본문에서는 ‘동아신질서(줄여서 동아

5) 이 대회에서 필리핀과 아일랜드는 각각 러시아와 영국의 반대로 깃발을 들고 입장하지 못했다.

6) 크리켓이 인기 있는 종목이었던 영연방체육대회는 제국주의와 식민지를 하나의 공동체로 묶는데 기여했다. Stoddart, Brian, "Sports, Cultural Imperialism, and Colonial Response in the British Empire." *Comparative Society and Social History*, 30-4, 1988.

7) 최다의 인파가 몰리는 구경거리는 만국박람회였다. 1851년에 런던에서 개최된 만국박람회에는 입장자가 600만명에 달했다. 中村敏雄 外, 전거서, 84쪽. 1900년의 제2회 파리올림픽은 파리만국박람회와 같은 시기에 열렸다. 이는 올림픽의 흥행을 위한 것이었지만 박람회의 성공으로 올림픽은 뒷전으로 밀쳐지게 되었다고 한다. 1908년의 제4회 런던대회에 와서야 올림픽이 흥행에 성공을 거두게 되었다.

8) 베네딕트 앤더슨, 윤형숙 옮김, 「민족주의의 기원과 전파」, 나남, 1993, 41-58면.

9) 한석정·임성모, 「쌍방향으로서의 국가와 문화: 만주국관 전통의 창조, 1932-1938」, 『한국사회학』 35-3, 2001을 참조하라.

또는 흥아)', 만주국, 민족을 각각 상상시키는 동아경기대회, 건국대운동회, 단오절운동회라는 3개의 체육 행사에서 조선인이 실제로 각 공동체를 어떻게 상상하였는가를 살펴보고(세 체육 행사는 모두 1940년 6월 거의 동시에 개최되었기 때문에 만주국의 조선인은 세 체육 행사에 '위계적으로' 참가해야, 다시 말하면 세 개의 체육 행사에서 상상되는 공동체를 '위계적으로' 상상해야 했다), 다시 상상의 공동체를 재현시키는 매체로서 협화회조선인분회와 만선일보를 살펴볼 것이다. 그리고 결론에서는 왜 협화회조선인분회와 만선일보가 결국은 민족이라는 공동체를 상상시키는 데 기여했는가를 설명할 것이다.

2. 동아경기대회

1940년은 일본제국에게 특별한 해였다. 1939년 봄·여름에 걸쳐 관동군이 노몬한에서 소련·외몽고와 충돌하였다가 패배를 당한 후에 소련과의 전면전 위협이 높아졌다. 이에 만주국에서는 1940년 4월에 <국병법(國兵法)>을 발효하였다.¹⁰⁾ 1940년 6월에 전세가 크게 바뀌게 되었다. 일본의 중지군(中支軍)이 한수(漢水)를 도하하여 8일 사시와 형주를 함락하고 11일에는 쓰촨으로 가는 양쯔 강 요충지인 의창(宜昌)을 함락했다. 이 때 독일은 파리 점령을 눈앞에 두고 있었다. 이태리가 참전했고 17일 패탕 프랑스부수상이 라디오를 통해 항복 성명을 발표했다. 이제 유럽에서는 영국만이 독일과 싸우게 되었고 독일은 '유럽의 신질서'를 구축을 눈앞에 두고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일본은 '동아의 신질서'를

구축하려고 했다. 일본은 독일을 대신해서 프랑스령인도차이나를 영유하려고 했다. 이렇게 해서 일본정부는 '남진' 정책을 추진하게 되었다. 7월에 기본적으로 소련정부의 주장을 받아 들이는 국경협정을 체결하고,¹¹⁾ 9월에는 일본군이 프랑스령인도차이나 북부를 침입했다. 이어서 독일, 이탈리아, 일본이 동맹조약을 체결했다.

이러한 확전의 분위기 속에서 일본은 이 해를 건국2천6백주년으로 대대적으로 기념했다. 6월에는 만주국 황제가 두 번째로 일본을 방문했다. 1935년 만주국 황제의 일본 방문을 기념해서 일본체육협회와 만주제국체육연맹의 주최로 일만친선(交驩)경기대회가 개최된 적이 있었다.¹²⁾ 이번에는 일본건국 2천6백주년을 기념해서 만주국 황제의 방일 직전에 도쿄에서 동아경기대회가 개최되었다.

동아경기대회는 그 명칭에서 극동(선수권)경기대회를 계승한 것이다.¹³⁾ 극동경기대회는 1934년 제10회 대회에서 만주국의 참가 문제로 일본과 중화민국 간에 분쟁을 겪은 후 극동체육협회가 해소되고 동양체육협회가 창설되어 더 이상 개최되지 못했다. 동양체육협회에는 극동체육협회 가맹국이었던 일본, 필리핀과 함께 마침내 만주국도 참가하게 되었다.¹⁴⁾ 1934년 12월 도쿄에서 개최된 제2회 가맹국총회에서 가맹 국가의 범위로서 중화민국, 인도, 삼, 페르시아, 네델란드령인도, 프랑스령인도, 버마, 아프가니스탄, 영령해협식민지 등도 인정했지만 이들을 가맹시키지는 못했다. 1939년 2월에는 신경남령운동장과 봉천국제경기장에서 이틀 간에 걸쳐서 일만화(日滿華)친선경기대회가 개최되었다. 이것은 만주국이 참가한 최대의 국

10) Jones, F. C., Manchuria Since 1931, Oxford University Press, 1949, 52쪽.

11) 解學詩, 僞滿洲國史新編, 人民出版社, 1995, 639쪽.

12) 滿洲帝國政府, 『滿洲建國十年史』, 原書房, 1969, 876-877쪽.

13) 1951년에 극동선수권경기대회와 서아시아경기대회를 통합하여 아시아게임이 개최되었다.

14) 滿洲帝國政府, 전계서, 895-901쪽.

제경기대회였다. 이 대회에 참가한 중화민국은 일본의 점령지에서 등장한 사실상의 괴뢰정권이었다. 여기에 필리핀이 가세하여 동아경기대회가 개최되었다.¹⁵⁾

원래 이 해에 도쿄에서 제12회 올림픽이 개최될 예정이었다. 일본은 올림픽을 유치했다가 중일전쟁이 확산으로 차달되면서 올림픽 유치를 반납했다. 그러나 동아경기대회는 극동올림픽이라고도 불렀던 극동경기대회와는 비교될 수 없을 정도로 그 내용이 빈약했고, 1936년에 나치의 깃발을 휘날리면서 개최된 베를린올림픽보다 더 정치적인 행사로 치러졌다. 동아경기대회의 정식 명칭은 ‘기원2천6백년봉축동아경기대회’였고, 주최자는 대일본체육협회, 기원2천6백년봉축회, 도쿄시였고, 동아경기(도쿄)대회의 총재는 황족인 질부궁(秩父),¹⁶⁾ 회장은 수상인 공작 근위문마(近衛文磨), 부회장은 도쿄 시장이었다.

동아경기대회는 도쿄대회와 관서대회로 나누어서 도쿄대회는 1940년 6월 5일에서 9일까지,

그리고 관서대회는 6월 14일에서 16일까지 각각 개최되었다. 동아경기대회의 정치 행사로서의 면모는 5일 오후 3시와 9일 오후 6시반에 각각 신궁(神宮)경기장에서 개최된 개회식과 폐회식에서 집약적으로 나타났다. 개회식과 폐회식은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되었다.¹⁷⁾

동아경기대회에는 일본, 만주국, 중화민국, 필리핀, 하와이가 참가했다. 이들을 흥아 5대 ‘민족’으로 선전했지만 만주국과 중화민족이 다른 민족이 아니며, 하와이는 실제로는 일본인 2세가 주축을 이루고 있었기 때문에 일본과 다른 민족도 아니었다. 그리고 이들은 일본을 제외하고는 모두 국가도 아니었다.¹⁸⁾ 필리핀은 미국의 식민지였으며 만주국과 중화민국은 사실상의 일본의 식민지였다.¹⁹⁾ 연기 공연에는 몽고도 참가했지만 이 때의 몽고도 일본의 식민지였다.

동아경기(도쿄)대회의 전체 선수단은 800여 명이고 경기 종목은 15개였는데, 만주국은 215명의 선수가 10개 종목에 참가했다.²⁰⁾ 만주국

<표 1> 동아경기대회 개·폐회식 순서

행사	행사 순서
개회식	임원정렬, 총재입장, 선수입장, 개회사, 국가(일본)제창, 궁성요배, 명치신궁요배, 목도, 대회기계양, 기원2천6백년가제창(시내 여자전문학교 7개교 학생), 영지, 식사, 선수선서, 기념수교환, 환영사, 축사, 철의 노래 합창, 만세삼창, 폐식사, 총재퇴장, 임원선수퇴장
폐회식	임원선수입장, 개회사, 국가제창, 궁성요배, 명치신궁요배, 목도, 철의 노래 합창, 기념품증정, 식사, 기원2천6백년에 대한 이야기(일본수상), 기원2천6백년봉축국민가합창, 만세삼창, 대회기강하, 임원선수퇴장, 대회기반납, 폐식사

출전: 「만선일보」 1940년 6월 5일자, 7면.

15) 식민지 시기 필리핀의 체육의 발전에 대해서는 Gems, G. R., "The Athletic Crusade: Sport and Colonialism in the Philippines." *The International Journal of the History of Sports*, 21-1, January, 2004를 참고하라.

16) 황족 질부가 1934년 6월에 만주국을 방문한 것을 기념하여 신경서공원경기장에서 봉영대운동회가 개최되었다. 이 대회에는 만주국 및 관동주의 우수선수를 망라하여 육상, 축구, 럭비의 3개 종목으로 진행했다. 滿洲帝國政府, 전게서, 889쪽.

17) 영지는 황후·황태자·황족의 말을 적은 문서를 지칭하는 용어이다. 황족 질부궁이 개회식에서 식사를 한 것을 영지를 하사하였다고 표현하였다.

18) 야구대회입장식 순서에서는 4개국 입장이라고 하여 하와이 일본인2세 야구팀을 국가대표팀으로 취급하였다.

19) 일본과 필리핀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임성모, 「제국의 교차로: 만주국-오키나와 비교 서설」, 『동아시아: 비교와 전망』 창간호, 2003을 참조하라.

20) 滿洲帝國政府, 전게서, 877쪽. 전체 선수단이 700명이라고도 하고 800명이라고도 한다. 『성경시보』 1940년 6월 6일자(석간), 2면; 6월 11일자, 2면. 전체 선수단이 800명이고 만주국 선수단이 195명이라고도 한다. 『만선일보』 1940년 6월 11일자, 2면. 『성경시보』에서는 단장 이하 만주국 대표단이 192명이라고도 한다.

선수단의 차림은 국방색 옷에다가 전투모를 썼다.²¹⁾ 선수입장식에서 황족인 질부총재가 단상에서 경례를 받았다. 질부총재가 하사한 영지(令旨)의 내용을 보면,²²⁾ “기원2천6백년을 봉축하여 동아경기대회를 거행한다. 선린 제방 다수 청년이 멀리서 내조(來朝)하여 이 성거에 참가하였다. 일동이 협화하여 본대회의 취지를 완성하는 것이 실로 기쁘다”라고 했다. 질부총재가 ‘내조’라고 한 것은 일본이 곧 과거의 조공체제에서의 중국과 같은 위치-동아의 맹주-임을 천명한 것이나 다름없었다. 이러한 정치적인 의미는 개회식에서는 참가국이 일본제국의 만세를 삼창하고, 폐회식에서는 일본제국이 참가국의 만세를 삼창하는 의례에서 잘 나타났다.

식사는 대회장인 일본수상, 중화민국국민정부주석대리(중화민국 대표단장이 대독), 만주국 국무총리, 필리핀대통령의 순서로 낭독되었다. 『성경시보』에서는 일본수상과 중화민국국민정부대리주석의 식사만 게재하였고, 『만선일보』는 어떤 식사도 게재하지 않았다. 동아경기대회에서 만주국의 조선인-이는 조선내지의 조선인도 마찬가지였을 것이다-이 설 자리는 없었다.

개회식을 마친 후에는 체조행진, 여자치도(薙刀), 중화국술공연이 있었다. 첫날 경기로는 자전거공개경기, 농구경기가 있었다. 농구 경기에서는 일본과 만주국(63 대 29), 필리핀과 중화민국(64 대 37)이 맞붙었다.²³⁾

6일에는 신궁경기장, 레슬링장, 야구장, 필드경기장, 대궁경륜장 등에서 7개 종목의 경기를

벌였다. 야구는 오전 11시에 신궁야구장에서 입장식을 거행했다. 하와이, 만주, 필리핀, 일본의 순서로 선수단이 입장하고, 요배와 목도, 위원장(일본인) 식사, 일본군 주장(명치대)의 선수대표선서, 도쿄시장의 시구식을 거친 후에 일본과 하와이,²⁴⁾ 만주와 필리핀(2 대 7)의 경기를 진행했다. 신궁구장에서는 기계체조(日本泥練), 미려체조(여자중등학생천3백명), 궁도, 검도, 몽고씨름 등을 공연했다. 오후에는 육상경기, 일본과 만주의 축구전(외원씨름장), 일본과 필리핀의 테니스전(필드운동장), 일본과 만주의 탁구전(공립운동장), 일본과 만주의 자전거전(대궁공원), 만주, 필리핀, 일본, 중화민국의 테니스전(야간, 씨름장), 필리핀과 만주(39 대 34), 일본과 중국(70 대 34)의 농구전(외원경기장)이 열렸다.²⁵⁾

외원경기장에서는 7일에는 무도(소학교), 맨손체조(소학교남학생), 몽고씨름 공연이 있었고, 8일에는 중화국술국방경기(외원경기장) 공연이 있었다. 9일에는 오전 9시에 일본과 재일독일인선발군의 핸드볼전, 도쿄부사범학교연합학생천2백명의 맨손 무선전체조 공연, 일본과 재일외국인의 럭비전, 오후 3시반에는 마라톤, 장대높이뛰기 등 육상경기, 정구(히비야공원운동장), 요트(요코하마만), 일본과 중화민국의 축구전(외원경기장)이 열렸다. 폐회식에서는 7백여명 선수단이 국기를 선두로 해서 육군군악대의 ‘기원2천6백년’ 연주에 맞추어서 입장했고, 다시 ‘반딧불의 빛’ 연주에 맞추어서 퇴장했다.²⁶⁾ 동아경기(도쿄)대회에서의 종목별 참가 상황

21) 만주국선수단의 입장 시의 단체 동작이 질부궁(秩父宮)의 주목을 받아서 식 종료 후에 각 단장을 귀빈실로 불러 알현을 허가한 자리에서 만주국 체육계에 대해 물어본 후 만주국선수단의 규율이 엄정한 동작에 만족한다는 뜻을 전했다고 한다. 『盛京時報』, 6월 7일자(석간), 2면. 성경시보에서는 다른 선수단의 입장식에 대해서는 보도하지 않았다.

22) 황후, 황태자, 황족의 말을 적은 문서를 영지라고 했다.

23) 『성경시보』, 1940년 6월 6일자(석간), 2면. 다음날 농구 경기에서는 필리핀과 만주국(39 대 34), 일본과 중화민국(70 대 34)이 맞붙었다. 『성경시보』, 6월 7일자(석간), 2면.

24) 『성경시보』에서는 일본학생연합군이라고 하였고 만선일보에서는 하와이 일본인2세라고 했다. 『만선일보』, 1940년 6월 7일, 7면.

25) 『성경시보』, 1940년 6월 6일자(석간), 2면; 6월 7일자(석간), 2면.

26) 『성경시보』, 1940년 6월 11일자, 2면.

과 성적은 다음과 같았다. 모든 종목에 참가한 국가는 일본 밖에 없었고 일본이 테니스를 제외한 모든 종목에서 우승을 차지했다. 탁구 일본식에서 일본과 필리핀이 공동우승을 한 것인지 오자인지는 확인할 수 없다. 만주국이 10개 종목, 필리핀이 8개 종목, 중화민국이 2개 종목,²⁷⁾ 하와이는 1개 종목, 외국인은 2개 종목에 각각 참가했다. 이를 보면 실제로는 일본, 필리핀, 만주국의 3개 국가가 참가한 것이라고 할 수 있었다. 만주국은 필리핀이 참가한 종목에서는 야구를 제외하면 모두 필리핀보다 성적이 못하였다. 아마도 만주국의 야구선수단은 만주국의 일본인을 중심으로 구성되었을 것이다. 일본 이외에는 참가국이 없는 종목에서는 일본에 거주하는 외국인을 참가시켰음을 알 수 있다. 경기 종목별로 보면 육상, 야구, 농구만 4

개 국가가 참가하였고, 테니스, 탁구(일본식)만 3개 국가가 참가하였으며 나머지는 모두 2개 국가(그리고 외국인)만 참가했다. 이러한 일본의 독무대와 다름없는 경기에서 “상호간 사람과 사람간의 직접 접촉으로써 우호 친선의 관계를 증가시킨다(일본수상의 식사)”는 체육 행사의 취지가 살아나기는 힘들었을 것이다.

도쿄대회에서 일본은 주로 관동군이 참가한 것이고 다시 관서대회에서 관서군이 참가했다. 실제로 동아경기대회는 국제경기라기보다는 일본체육대회였고 다른 국가는 일종의 들러리로 참가한 것이었다. 실제로 1940년 10월에는 만주국이 처음으로 명치신궁국민체육대회에 정식으로 참가했다. 그리고 1942년에는 만주국 건국10주년을 기념해서 제2회 동아경기대회가 신경에서 개최되었다.

〈표 2〉 동아경기대회(도쿄) 종목별 참가 상황과 성적

종목	일본	만주국	필리핀	중화민국	하와이	외국인
육상	1	3	2	4	불참	불참
야구	1	2	3	불참	4	불참
농구	1	4	2	3	불참	불참
테니스	2	3	1	불참	불참	불참
탁구	일본식	3	1	(불참)	불참	불참
	국제식	1	2	불참	불참	불참
럭비	1	2	불참	불참	불참	불참
배구	1	2	불참	불참	불참	불참
경륜	1	2	불참	불참	불참	불참
정구	1	2	불참	불참	불참	불참
권투	1	불참	2	불참	불참	불참
레슬링	1	불참	2	불참	불참	불참
요트(帆船)	1	불참	2	불참	불참	불참
필드하키	1	불참	불참	불참	불참	2
핸드볼	1	불참	불참	불참	불참	2
축구	참가	참가	참가	참가	불참	불참

출전: 『盛京時報』 1940년 6월 11일자, 2면.
 주: 축구는 관서대회 후에 결정.

27) 탁구(일본식)에 참가했다고도 한다. 『성경시보』 1940년 6월 7일자(석간), 2면.

〈표 3〉 건국대운동회 개최 사례

지역	명 칭	일시	장소	주최자	종목	보도(發) 주 최
신경 (新京)	제9회 건국대운동회	6월 8일	신경남령 운동장	신경시, 체육연맹신경 시사무국, 협화회수도 본부, 기원2천6백년 경축사무국	단체행사, 육상, 여흥	만선일보사
연길 (延吉)	제9회 건국대운동회 (홍아대운동회 연길대회)	6월 10일	북산국민우급 학교운동장	체육연맹간도성사 무국연길현지부	육상, 씨름, 그네뛰기	연길지사
해륜 (海倫)	일본기원2천6백년 만주제국경축홍아 건국기념제9차해륜 현대운동회	6월 13일	순천공원내 운동장	협화회해륜현본부, 해륜현공서일본기원 2천6백년경축위원회	육상, 단체행사	해륜지국
교하 (蛟河)	교하현건국대운동회 일본기원2천6백년 봉축대운동회	6월 15일	공설운동장		학교대항, 마라톤, 일반릴레이, 분열식, 홍아, 돌격, 덤블링	교하지국
집안 (輯安)	황기2천6백년경축 및 건국기념대운동회	6월 15일	건국운동장			집안지국
화룡 (和龍)	제9회 건국대운동회	6월 16일	현공서광장	만주제국체육연맹 화룡현체육회	육상	화룡지사
회덕 (懷德)	홍아대운동회	6월 16일	공주령 교외 백운로 앞 광장	현공서, 협화회	육상	공주령지국
목단강 (牡丹江)	건국기념시민 대운동회	6월 16일	태평로운동장		단체행사, 육상	목단강지국

출전: 「만선일보」, 1940년 6월 7일자, 5면; 6월 9일자, 4면; 6월 10일자, 3면; 6월 13일자, 4면; 6월 22일자, 5면; 6월 20일자, 4면.

동아경기대회의 어디에도 조선인은 등장하지 않았다. 만선일보에서는 만주국 대표선수의 성적에 대해서 관심을 표시했다. 만주국이 육상 경기에서 1500미터, 투포환, 철추투(鐵鎚投)에서 1등을 차지하고 야구에서 2등을 차지한 것을 대서특필했다. 1500미터 우승자는 중국인(민생부), 투포환 우승자는 러시아인(하얼빈), 철추투우승자는 일본인(무순)이었다.

3. 건국기념대운동회

건국기념대운동회는 만주국의 체육행사 가운데

에서 역사가 가장 오래되었다. 제1회 대회는 만주국체육협회 주최로 1932년 4월 하순에서 5월 상순에 걸쳐 주로 만철부속지를 중심으로 하는 31개 도시에서 수시로 개최되었다. 당시의 명칭은 ‘건국기념연합대운동회’로 참가단체는 초·중등·전문학교 이상의 학생을 위주로 하고 지역의 상황에 따라 일반인을 추가했고, 각 민족의 학생들을 단체 또는 팀에 혼입시켜 민족융화를 실현하기 위한 목적으로 단체운동(체조·무용)을 위주로 하고 운동경기(연기, 무술, 육상, 축구, 기계체조, 기타 가장행렬 등)를 추가했다. 행사를 개최하면서 운동회가와 국가

를 대신하여 건국가를 제정하고 국기 게양을 위해 관동군사령관과 집정(대회명예총재)으로부터 각각 일본국기와 만주국국기를 기증받았다. 이 대회는 국제연맹조사단이 방문한 시기에 개최되어 만주국이 이와 같은 문화운동을 개최할 수 있다는 사실을 과시했다.²⁸⁾

이와 같이 건국대운동회는 처음부터 국가 의례로서의 의미를 강하게 띠고서 시작되었다. 일만양국기 게양에서 알 수 있듯이 국가 의례에서 국가에 만주국뿐만 아니라 일본제국을 포함하고, 더욱이 일본제국을 만주국보다 우선하는 방식은 이후에도 반복되었다. 사실 ‘건국’의 주최는 일본인이었으므로 이러한 체육행사가 만철부속지를 중심으로 하는 도시[일본인이 다수 거주하는]에서 개최되고 국가 의례의 중심도 일본제국이 되는 것은 이상할 것이 없었다.²⁹⁾

제2회 대회부터는 명칭을 ‘건국기념(개최지)대운동회’로 고치고 단오절을 개최일로 결정했다. 민족연합이라는 의미를 가지는 ‘연합’이라는 용어를 삭제하고, 전국적으로 일제히 거행하기로 한 것은 모두 ‘국가’를 ‘동시성’의 주최로 하기 위한 의도였다. 그러나 실제로 모든 지역에서 같은 날에 실시되지는 않았다. 이는 후술할 ‘단오절운동회’와 다른 점이었다.

1934년 제3회 대회는 만주국의 황제 등극을 경축하는 ‘경축대전대운동회’를 겸하여 거행했다. 이와 같이 건국대운동회가 다시 그 해의 정치적인 의미를 추가하는 관행은 1940년의 제9회 건국대운동회에서도 나타나서, 이 해에는 ‘일본기원2천6백년경축홍야대운동회’를 겸하게 되었다. 1940년의 건국대운동회 개최지는 600여개소이고, 참가인원은 200여만명에 달했다.³⁰⁾ 만선일보가 보도한 각 지역의 건국대운동회의

예는 다음과 같다.

운동회의 주최자를 보면 체육연맹이 단독 개최한 경우(연길, 화룡), 체육연맹과 지방정부가 공동 개최한 경우(신경), 지방정부와 협화회가 공동 개최한 경우(해륜, 회덕)가 있었다. 신경과 해륜에서는 일본기원2천6백년경축사무국(위원회)이 주최자에 포함되었는데 신경의 경우는 시공서와 별도 조직인 반면에 해륜의 경우는 현공서의 산하 조직이었다.

운동회 개최일을 보면 연길의 경우만 단오절인 6월 10일에 개최했다. 개최일이 지역별로 다른 것은 사실 단오절과 ‘건국’간에는 아무런 관련이 없이, 다만 봄 가운데서 단오절 무렵이 운동회를 개최하기에 좋은 시기였기 때문이었다. 해륜을 제외하면 모두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개최했다. 회덕현의 경우는 원래 6월 15일에 개최할 예정이었으나 비가 와서 하루 연기한 것이라고 한다. 따라서 토요일이 가장 선호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운동회 개최 장소로서는 운동장인 경우(신경, 연길현, 목단강시)와 광장인 경우(화룡현, 회덕현)가 있었다. 운동회 개최 장소는 종목과도 관련이 있었다. 광장에서 개최한 경우는 육상경기 위주였다. 운동회라는 명칭에 걸맞게 목단강과 신경의 경우에는 단체행사에 여흥적인 요소가 포함되어 있었다.

개최 장소만 봐도 각급 학교와 관공서가 집중되어 있는 수도 신경이 규모가 가장 컸음을 알 수 있다. 신경 건국대운동회는 오전 9시에 일만양국기에 대한 경례, 황거와 제궁 요배, 홍야의 초석이 되어 산화한 순충영렬에 대한 묵도, 개회사(寸川 위원장), 축사(張 국무총리)의 순서로 개회식을 진행했다. 그리고 오후 5시에 우승기수여, 폐회사, 일만양국 만세 삼창으로

28) 滿洲帝國政府, 『滿洲建國十年史』, 原書房, 1969, 885-886쪽.

29) 비어 있는건가요?

30) 滿洲帝國政府, 전계서, 886. 1941년의 제10회 건국대운동회는 개최지가 370여개소였다. 전계서, 875쪽.

운동회를 마쳤다.³¹⁾

대회에는 신경시의 47개 초·중학교 학생과 협화회의용봉공대원 1만6천명이 관람했다. 오전부는 단체행사, 오후부는 육상경기와 연기 공연으로 짜여졌다.³²⁾ 오전에는 건국체조(초·중등학생 300여명), 헝가리댄서(부도고녀전과생), 연기(여자국민고등학교학생) 시범을 보이는 것으로 끝이 났다. 오후에는 건국장(建國杖)체조(문화국민학교학생) 시범을 보인 후에 400여미터 릴레이를 시작으로 트랙과 필드 경기가 시작되었다. 경기 중에 조선인분회인 계림분회원의 농악, 장춘분회원(중국인)의 한선(旱船), 만영(滿映)분회원(일본인)의 신여(神輿)와 가장행렬 공연이 있었다.³³⁾ 연기 공연에는 각 팀당 30명이 출연했다. 계림분회는 농악팀을 구성하기 위해서 만선일보에 참가자를 모집했다. 만선일보에 의하면 농악이 큰 호응을 얻었다고 한다.

계림분회는 직장별분회대항경기에 참가한 37개 단체 가운데서 5등을 차지했다. 직장별분회대항경기에 참가한 선수는 모두 3천여명(분회별 평균 80여명)이었다. 전년도 우승단체인 중앙은행분회(35점)가 다시 우승을 차지했다. 그 다음으로는 만철분회(25점), 대륙과학원분회

(22점), 광발(鑛發)분회(15점), 계림분회(13점), 방산(房産)분회(11점), 일만상사분회(9점), 우정관리국분회(7점), 만척분회(5점), 시공서분회(4점)의 순서였다. 계림분회는 일본기원2천6백년을 기념하는 종목인 2600미터단체경주에서 우승하고 줄다리기에 10여팀을 물리치고 전년도에 이어 우승을 차지했으며, ‘마라톤조선’을 여지없이 발휘하여 마라톤에서도 1등을 차지하고, 다음볼보내기에서 5등을 차지했다.³⁴⁾

다음으로 연길현의 경우를 보자. 연길현에서는 건국기념대운동회와 단오절운동회가 사실상 이원적으로 진행되었다. 전자는 육상경기를 위주로 하되 연기 공연, 내빈과 임원을 참가시키는 종목 등을 포함하는 전형적인 운동회인 반면에,³⁵⁾ 후자는 씨름·그네뛰기대회였다. 건국대운동회는 강우로 인해서 12일-13일로 연기되었다. 그런데 10일과 11일 오후에는 쾌청해 지자 연길공원에서 10여개소에 그네를 매달고 그네뛰기대회를 거행했다. 그네뛰기대회는 연길공원이 개장된 후 최다 인파가 몰릴 정도로 성황을 이루었다고 한다.³⁶⁾ 그네뛰기대회를 10일과 11일에 강행한 것은 건국대운동회가 실제로는 단오절운동회였던 것을 시사한다. 대회 총경비 2천원 중에서 주최자인 연길현체육회는

31) 『만선일보』 1940년 6월 9일자, 7면; 6월 10일자, 2면.

32) 합동체조(시내 각 소학교 여학생), 자매(금금구고녀), 체조(영춘로국민학교), 일만정축행진곡(부도고녀), 일본건국체조(신경1중과 2중), 여자청년체조(사도학교 여자부) 등도 포함할 예정이었는데 실제로 공연되었는지는 확인할 수 없다. 『만선일보』 1940년 6월 6일자, 7면.

33) 100미터계주제1예선, 줄다리기 예선, 2600미터단체경주결승, 800미터계주제1예선, 여자200미터계주예선, 30대400미터계주예선, 40대200미터계주예선, 다음볼보내기 예선, 400미터계주제2예선, 계림분회연기, 중국인분회연기, 800미터계주제2예선, 백계러시아인연기, 교통부분회연기, 줄다리기결승, 여자200미터계주결승, 40대200미터계주결승, 200미터계주결승, 다음볼보내기 결승, 400미터계주결승, 800미터계주결승의 순서로 진행할 예정이었다. 『盛京時報』 1940년 6월 9일자, 5면. 백계러시아인연기, 교통부분회연기가 실제로 공연되었는지는 확인할 수 없다. 아마도 만영분회원연기로 대체된 것으로 보인다.

34) 1940년에 신경에서는 정치적인 사건을 기념하는 체육행사가 또 하나 더 개최되었다. 그것은 만주국승인기념일인 1940년 9월 15일에 개최된 전만4대도시체육대회신경대회였다. 이 대회에는 관동주에 속하는 따라서 만주국에 속하지 않는 대련도 참가하였다. 대회의 주최자는 체조협회, 4대도시, 조일(朝日)신문사였고, 참가자는 초·중등학교학생, 치안부, 전전양성소, 만철, 신경체육연맹 등이었다. 대회는 남령운동장에서 낮 12시 30분에 개회식이 입장행진, 훈시(민생부대신), 축전피로, 만주체육가제창, 건국체조(전원), 스모체조(백국소학교), 건국장(문화국고)과 2천6백년행진(부도·금금구여고)의 순서로 진행되었다. 『만선일보』 1940년 9월 17일자, 2면.

35) 종목은 중소학교 육상, 일반 육상, 원반던지기, 1600미터릴레이예선(각 기관대항), 방호연습(연길회의용봉공대), 중국인무술(중국인유지), 200미터결승, 마라톤, 800미터릴레이결승(각 기관대항, 우승배쟁탈전), 특수병릴레이(의용봉공대 각 구대항), 1600미터릴레이결승(각 기관대항, 우승기쟁탈전), 줄다리기(遼寧省; 내빈), 임원경주 등이었다. 『만선일보』 1940년 6월 11일자, 3면.

36) 『만선일보』 1940년 6월 13일자, 5면.

500원을 보조하였을 뿐이고 나머지는 모두 기부금으로 충당하였다고 하는데, 건국대운동회가 실제로는 단오절운동회였다고 하면, 이 기부금은 다른 지역에서의 단오절운동회의 경우에서와 같이 조선인이 각출하였을 것이다.

다음으로 해륜현의 경우를 보자. 오전부는 100미터 경주, 의담(依擔)경주(100미터), 1인1족(50미터), 계산경주(100미터), 마라톤, 척령구(擲鈴球), 오후부는 400미터경주, 만두 먹고 경주, 200미터경주, 맹아100미터경주, 800미터경주, 조병(釣瓶)경주(100미터), 노인일반·40세이상·어머니(10미터), 2인3각(100미터), 시운(時運)경주(100미터), 1500미터경주, 장애특경주(100미터), 탄(彈)경주, 400미터릴레이, 800미터릴레이, 3단뛰기, 원판, 넓이뛰기, 높이뛰기의 순서로 진행할 예정이었다. 그리고 경기 사이에 각 초등학교·여자실업학교 등의 무도를 7회 진행할 예정이었다.

다음으로 교하현의 경우를 보자. 대회에는 일본인, 조선인, 중국인(원문은 일선만 각계) 선수가 참가했고 관중이 1만명에 달했다. 입상성적을 보면 조선인이 55퍼센트, 중국인이 30퍼센트, 일본인이 15퍼센트를 차지했다. 주요 종목의 성적을 보면 학교대항은 선린학교(조선인), 실험학교(중국인), 심상소학(일본인), 현립학교(중국인)의 순서였고, 학생개인대항은 조선인이 1등(돈화초등학교 학생, 16세), 2등, 5등, 6등, 10등을 차지했고, 일반릴레이는 내자산탄광(일본인), 신참양선교(조선인), 교하역(중국인), 안동의원(조선인)의 순서였고, 분열식(여흥), 홍아돌격은 선린학교가, 그리고 덩블링은 실험학교가 각각 1등을 차지했다.

다음으로 집안현의 경우를 보자. 대회에는 각 기관 인사, 현국민우급학교 외 일본인, 조선인, 중국인 각 학교의 학생들이 참가했다. 오전 8시부터 시작해서 오후 7시에 끝마쳤으며 집안현으로서는 건국 이래 처음으로 보게 되는 대

성황을 이루었다고 한다.

다음으로 목단강의 경우를 보자. 경기 종목은 단체행사로 건국체조, 검도체조, 체육댄서를 실시하고, 일반 행사로 여자50미터, 줄다리기(인경쟁), 빵먹기경쟁, 남자100미터, 계등경쟁, 2인3각, 학생 경기로 100미터(남녀), 청백경주, 미취학아동경쟁으로 과자줍기, 군인·관청·회사·은행·상점대항행사로 800미터계주, 100미터스웨덴계주, 국방부인회지부대항행사로 50미터, 불던지기경쟁, 구대항행사로 100미터, 1500미터, 400미터, 1600미터계주, 마라톤, 표분(몹이나 사람에게 따라 나눔)경쟁, 투포환, 백종경쟁, 멀리뛰기, 장애물경쟁 등이 있었다. 목단강의 경우는 참가자와 종목으로 보아 전형적인 시민운동회였음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회덕현의 경우를 보자. 경기 종목은 100미터, 낚시(漁釣), 400미터, 100보경주, 1500미터, 대구희(大球戲), 5족사도(仕度)경주, 새끼꼬기경주, 계등경주, 800미터릴레이 등이 있었다. 종목은 많지 않지만 운동회 명칭에 부합하는 다양한 종목으로 이루어져 있다. '5족' 경주를 포함한 것은 운동회 명칭인 '홍아'와 부합한다.

마지막으로 화룡현의 경우를 보자. 오전 9시 정각이 되자 3천여명의 관중과 지신, 삼합, 명신, 덕신, 광개, 월청, 덕화 등 7개 촌의 청년, 남녀학생단 선수와 각촌 응원단학생, 남녀임원이 입장하고, 삼합촌군악대를 선두로 각 촌 각단 선수가 입장하여 오전 9시50분부터 경기를 시작했다. 오전 11시경에는 무려 만여명에 달하는 인파를 이루었다. 18개 종목 경기를 11시 58분까지 완료하고 12시부터 1시까지 점심시간을 가진 후에 오후 1시부터 다시 경기를 속개하여 오후 4시 50분까지 경기를 마쳤다. 득점 경기 종목으로는 등교200미터결승, 사침(絲針)100미터결승, 200미터결승, 100미터결승(여), 800미터결승, 400미터결승, 200미터결승(여),

1500미터결승, 800미터릴레이결승, 400미터릴레이결승(여), 1600미터릴레이결승이 있었다. 만선일보가 이 운동회를 ‘화룡의 올림픽’으로 표현한 것은 각 촌 대항전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일 것이다. 성적을 보면 지신촌이 1등(29점), 삼합촌이 2등(27점), 덕신촌이 3등(22점)을 차지하여 최고점우승기는 지신촌이 차지하고, 우승기부는 지신촌 청년단, 삼합촌 여학생단, 덕신촌 남학생단이 각각 차지했다.³⁷⁾ 1등 우승자에게는 총리대신포장인 선수권을 수여했다.

만선일보에서 보도한 건국대운동회는 극소수 사례에 불과했다. 그렇다면 왜 만선일보가 이들 지역을 보도했을까? 이들 지역은 신경, 연길(건국대운동회와 단오절운동회를 통합하여 개최), 교하(그네뛰기대회만 개최)를 제외하면 단오절운동회가 개최되지 않은 지역이다. 회덕은 예외적인 지역이었다(후술). 목단강, 화룡, 해룡, 집안은 연길에는 미치지 못하였지만 신경과는 달리 건국대운동회에서 조선인이 덜 소외당하였기 때문일지 모른다. 그렇다고 하면 조선인이 건국대운동회에서 민족을 넘어 지역, 나아가 만주국, 더 나아가 ‘홍아’라는 공동체를 상상할 수 있기 위해서는 운동회 안에서 소외당하지 않아야만 할 것이다.

한편 봉천에서 발행되는 중국어 신문인 『성경시보(盛京時報)』에서는 신경(‘신경경축홍아 건국기념대운동회’),³⁸⁾ 무순, 의현(義縣), 태안의 건국대운동회에 대해서는 보도했다.³⁹⁾ 무순의 경우는 개최지는 무순성국민고등학교운동장이고, 주최자는 현공서이고, 참가자는 협화회, 흥농합작사, 각 경찰서, 각 우급국민학교였다. 운동종목이 40여개에 달했다. 의현의 경우는 7일에 제9회 건국대운동회를 개최했다. 각 기관, 중소학교, 민중 등이 참가하여, 일반부, 중학부,

소학부로 나누어서 경기를 진행했다. 태안의 경우는 6일-7일 이틀간 홍아대운동회(현장이 대회장)를 개최했다. 7개 교구로 나누어서 선수가 500여명이었으며 우급남학생조와 여학생조로 나누어서 진행했다. 응원단으로는 남녀학생 2천여명이 참가했다. 이를 보면 성경시보는 만선일보보다 건국대운동회에 대해서 더 많이 보도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대신에 성경시보는 자신이 주최하고 건국대운동회와 같은 시기에 신경에서 개최된 만주국과 중화민국 7개 도시의 선수가 참가하는 ‘만화(滿華)친선장기경기대회’에 대해서 자세하게 보도했다.⁴⁰⁾

4. 단오절운동회

신경의 건국대운동회에서 조선인의 참가자가 몇 명이나 되었는가를 알 수 없다. 관중 중에는 계림분회 산하의 의용봉공대원이 있었을 것이지만 그 수는 많지 않았다. 선수를 보면 단체행사에 신경 유일의 조선인 보통학교인 영락보통학교 학생들은 참가하지 않았고, 직장별분회대항경기에 조선인민족분회인 계림분회가 37개 팀 가운데 한 팀으로 참가했을 뿐이다. 다만 여흥 행사에서 계림분회원이 농악공연을 한 것이 돋보였다. 원래대로 하면 직장별분회대항경기에 계림분회가 참가할 수는 없었지만 조선인을 들러리로 세우기 위해서 계림분회의 참가를 허가했을 것이다. 만약 37개 팀이 각각 민족을 대표한다고 하면 조선인도 이 대회에서 민족을 가로지르는 지역공동체의 일원임을 실감하였을 것이지만, 37개 팀이 실제로는 일본과 중국이라는 두 민족을 대표하는 상황에서 지역공동체의 일원임을 실감할 수는 없었을 것이다. 이 때문

37) 『만선일보』 1940년 6월 22일자, 5면.

38) 『盛京時報』 1940년 6월 9일자(新京特刊), 5면.

39) 『盛京時報』 1940년 6월 12일자, 5면.

40) 7개 도시는 대련, 천진, 금주, 북경, 봉천, 신경, 하얼빈이었다. 『盛京時報』 1940년 6월 7일자 조간(원문은 晨刊), 2면. 단오절 운동회에 대해서는 안동의 조선인그네뛰기대회에 대해서만 짧게 보도했다. 『盛京時報』 1940년 6월 12일, 5면.

에 조선인은 계림분회원의 여흥 공연과 경기 성적에 관심을 집중했다. 곧 조선인에게 건국대 운동회는 운동회라기보다는 경기회로 인식되었고, 따라서 상상하는 것도 지역공동체(신경 시민)가 아니라 민족공동체(신경의 조선인)였다.

만주국의 조선인에게는 진정한 운동회가 따로 있었다. 그것은 건국대운동회와 같은 시기에 개최되는 단오절운동회였다. 다음의 기사에서 이러한 사정을 확인할 수 있다.⁴¹⁾

금년도 예년과 같이 전만 각지에서 운동회, 씨름대회, 그네뛰기대회 등 각종의 단오절행사가 계획되고 있다. 이 행사는 만주에 있는 선계

동포의 연중행사 중 가장 큰 행사의 하나로 이때 우리는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한자리에 동원되어 이 단오절을 즐겨하고 모국을 떠나있는 우리로서 1년 중 이때에 가장 모국정서를 섭취한다. 그리하여 단오절 행사에서는 평시에 있어 호외운동을 하지 못하는 어린이 부인들까지도 호외로 동원하여 체위 향상에 큰 도움이 될 뿐더러 그곳에 현출되는 우리의 전통적 분위기에 호기를 기르는 작용까지 일으켜 매년 의의 있는 행사로서 끝을 맺게 되는 것은 반가운 일이다.

만선일보에서 단오절운동회 개최를 광고한 지역은 다음과 같다.

〈표 4〉 단오절운동회 개최 광고 사례

지역	명칭	일시	장소	주최자	후원자	종목
신경(新京)	단오절계림분회원 위안운동회(선계 시민대운동회)	6월 10일	대동공원광장	계림분회	만선일보사	육상경기, 씨름, 그네뛰기
봉천(奉天)	조선인대운동회	6월 10일-11일	국제운동장	협화회봉천시본부 선계공작간사회	만선일보·매일신보·조선일보·동아일보봉천지사	육상, 씨름, 그네뛰기
회덕(懷德)	시국강연회			회덕현협화회본부 선계지도위원회	만선일보 공주령지국	4개 방면 각 강사 3명
대둔촌(大屯村)	단오대운동회		국민우급학교 운동장	협화회대둔분회	만선일보 길림총지국	
연통산(煙筒山)	씨름그네뛰기대회		부근 백사장	연통산시민	만선일보연 통산지국	씨름, 그네뛰기, 마라톤
하얼빈(哈爾濱)	시민대운동회	6월 10일	팔구(八區)운동장	금강분회	만선일보 북만지사	육상, 씨름, 그네뛰기
오상(五常)	씨름그네뛰기대회		홍농합작사교역장	협화회오상분회 조선인반	만선일보사 오상지국	
집안(輯安)	씨름그네뛰기대회		성서문의 백사장	만선일보사 집안지국	협화회집안가분회	
길림(吉林)	씨름그네뛰기대회 (제7회제주동포 대운동회)	6월 10일	강남공원 백사장	만주체육회 길림시협회	만선일보사 길림총지국	
개원(開原)	황기2천6백년봉축 단오운동대회		태화소학교교정	만선일보·조선일보개원지국	협화회개원현본부	육상경기, 씨름, 그네뛰기
동변도(東邊道)	씨름그네뛰기대회	6월 10일-11일	매하국민학교 운동장	매화구조선인일동	만선일보사 매화구지국	
반석(磐石)	씨름그네뛰기대회		삼화학교교정	협화회반석현 본부선계반	만선일보·조선일보반석지국	
통화(通化)	씨름그네뛰기대회	6월 10일-11일		기원2천6백년기념 경축위원회	만주체육회통화지부, 만선일보지국, 봉천매일통화지국	

출전: 『만선일보』, 1940년 6월 7일자, 4면; 8일자, 4면, 7면; 9일자, 4면; 10일자, 3면.

41) 『만선일보』 1940년 5월 28일자, 1면.

그리고 만선일보의 각 지국에서 단오절운동회 개최 준비 상황을 보도한 지역은 다음과 같다. 현재의 만선일보 영인본은 6월 14일에서 6월 18일까지가 빠져있다. 따라서 단오절운동회가 개최된 지역은 더 많았을 것이다. 실제로 춘화의 경우에는 6월 20일자에 단오절운동회 개최 소식을 보도했다.

회덕현은 단오절운동회 유형에 속하지는 않지만 단오절운동회 광고에 포함되어 있었다. 회덕현도 매년 단오절운동회를 개최해 왔지만 1940년에는 각 민족이 연합하여 참가하는 흥아대운동회로 대신하기로 하고 대신에 단오절에 시국 인식에 대한 지방순회강연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이는 회덕현의 협화회선계지도위원회가 ‘흥아’라는 상상의 공동체를 지향했음을 말해 준다.⁴²⁾

회덕현을 제외하면 단오절운동회는 대회 명칭, 주최자, 경기 종목 등에서 민족(조선인)이

라는 상상의 공동체를 지향했음을 알 수 있다. 명신촌만 육상경기대회이고(따라서 실제로는 건국대운동회 유형인 것으로 보인다) 나머지는 씨름·그네뛰기만 개최하는 경우와 씨름·그네뛰기와 함께 육상 등을 포함하는 경우로 두 가지 유형이 있었다. 안동, 교하를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는 씨름이 경기 종목에 포함되어 있었고, 용정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는 그네뛰기가 경기 종목에 포함되어 있었다. 용정의 경우는 같은 날 실시되는 연길현건국대운동회(실제로는 단오절운동회)의 그네뛰기 대회에 참가할 수도 있었을 것이다. 따라서 단오절운동회에서 그네뛰기가 가장 중요한 종목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교하에서는 5-6년 전부터 단오절에 씨름과 그네뛰기를 실시해오다가 1940년에는 사정이 있어서 씨름 종목을 취소하고 그네뛰기만 실시하기로 한 것이 단적인 예이다.⁴³⁾ 앞에서 인용한 기사에서 “호외(戶外)운동을 하지 못하

〈표 5〉 단오절운동회 개최 준비 상황을 보도한 사례

지역	명칭	일시	장소	주최자	종목	보도(發)주최
영구(營口)	단오행사			농본분회	그네뛰기, 축구, 정구	영구지국
용정(龍井)	축구대회(제3회)와 씨름대회	6월 10일-11일	시민운동장	용정가체육회		용정분사
조양천(朝陽川)	단오놀이	6월 10일-12일			육상, 씨름, 그네뛰기	조양천지국
명신촌(明新村) (和龍縣)	육상경기대회	6월 10일		명신촌체육회		삼도구지국
안동(安東)	씨름그네뛰기대회	6월 10일	육도구운동장	조선인유지		안동지국
돈화(敦化)	씨름그네뛰기대회	6월 10일	공회당 앞	돈화선계청년회		돈화지국
교하(蛟河)	부인그네뛰기대회	6월 10일-11일	청엽(靑葉)공원			교하지국
춘화(春和)	시민대운동회(제9회)	6월 12일		춘화협화분회	육상, 씨름, 그네뛰기	대흥구지국

출전: 『만선일보』 1940년 5월 30일자, 3면; 6월 7일자, 5면, 7면; 8일자, 4면; 9일자, 4면; 20일자, 5면; 『盛京時報』 1940년 6월 12일, 5면.

42) 회덕현에서의 시국강연회를 개최하기로 지역의 하나인 진가문은 현성에서 45리 떨어진 곳으로 만선척식회사가 귀순조선공산비 14호, 111명을 입식시킨 곳이었다. 그리고 그 가까이에는 다시 조선인 밀수업자를 수용했다. 金子定 - 1940. 『牛島人の美點と短所』, 『新滿洲』 4.
43) “현내 수만거주동포로 하여금 1년 1차의 한자식의 기쁨과 위로를 주어오던 바 금년은 여러 가지 사정상 씨름은 중지하고 부인들의 그네뛰기만 거행하기로 하였다.”

는 어린이·부인들까지도 호외로 동원하여...”라는 구절에서 알 수 있듯이 그네뛰기는 여성들에게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가졌던 것으로 보인다.⁴⁴⁾

조선인이 다수를 차지하는 연길현의 경우에만 건국대운동회와 단오절운동회를 통합적으로 진행했다.⁴⁵⁾ 사실 연길현에서는 건국대운동회와 단오절운동회의 참가자의 범위가 크게 다르지는 않았다. 연길현 내에서 조선인의 비율이 가장 높은 용정가의 경우도 매년 단오절에 건국운동회를 개최해 왔지만 1940년에는 신설 시민운동장이 완성되지 않아서 가을로 연기하고 대신 조선인에게 가장 인기가 높은 축구대회와 ‘조선인의 향토적 경기’로 매년 단오절에 행해져 오던 씨름대회를 개최했다.⁴⁶⁾

건국대운동회와는 달리 단오절운동회는 가·촌 단위로도 개최되었음을 알 수 있다. 목단강과 화룡현의 경우에는 건국운동회만 개최하고 단오절운동회는 별도로 개최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들 지역은 연길현과 같이 조선인이 다수를 이루고 있어서 건국대운동회와 단오절운동회를 통합적으로(실제적으로는 이원적으로) 개최할 수는 없었지만 조선인의 비율이 높았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조선인의 대표성이 뚜렷하

였기 때문에 건국대운동회를 통해서 지역공동체 또는 민족공동체를 상상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양자가 충돌하지 않을 수 있었다. 이들 지역에서 적어도 조선인은 중국인 다음의 두 번째로 많은 민족이었다).

신경의 단오절운동회에서의 일정은 다음과 같았다.⁴⁷⁾ 오전 8시 30분에 개회식을 시작하였다. 개회식은 일만양국기 경례, 일만양국가 제창, 황거와 제궁 요배, 개회선언(대회장인 계림분회회장), 인사(협화회수도본부장), 주의사항지시(경기부장)의 순서로 진행되었다. 단오절운동회에서도 일만 양국의 국가의례를 진행했다.⁴⁸⁾

9시부터 제1부(오전부) 육상경기를 진행했다. 경기종목은 100미터경주, 두사람이 다리를 묶어서 달리기(2인3각), 계산경주, 200미터경주, 병식(餅飮)경주, 아동50미터경주, 아동과자줍기경주, 마라톤, 400미터경주, 부인경주, 사람찾기(尋人)경주, 반대향릴레이, 차물경주, 800미터릴레이, 임원청백전, 가장행렬 등이었다. 육상경기과 여흥이 혼합되어 있는 전형적인 운동회였음을 알 수 있다. 제2부(오후부)는 씨름과 그네뛰기로 진행되었다. 흥미의 초점이 되는 씨름은 정오부터 개시했다. 오후 6시반에 그네뛰기부를 제외한 모든 경기를 마치고 씨름, 마라

44) 씨름은 일반적으로 선수 위주로 진행되었다. 이 때문에 안동시에서는 선수 위주의 진행을 탈피하여 주로 안동에 거주하는 조선인의 건강과 기능을 목표로 하는 운동회를 개최하기로 하여 경기 종목에서 개인우승전과 별도로 각 학교·회사·공장원이 참가하는 3인조단체대항전을 신설하였다. 『만선일보』 1940년 6월 8일자, 4면. 단오절에 행해지는 그네뛰기의 전통에 관해서는 金瓊根, 「단오명절에 관한 이저기」, 『신가정』 1935년 4월, 151-152쪽을 참조하라.

45) 간도지역에서는 1910년대부터 단오절운동회를 개최해오고 있었다. 1915년 간민교육회가 단오절운동회 개최를 통지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간민교육회에서는 올묘년 5월 5일 단오절을 맞으면서 연길 국자가에서 전간도조선족학생운동대회를 진행하니 전 학교에서는 용약참가하길 바란다. 경기 종목으로는 넓이뛰기, 높이뛰기, 장대높이뛰기, 경보, 2인3각·3인4각 달리기(두세사람씩 다리를 동여매구 달리기), 장애물경주, 구류 등이 있다.” 朴革友·金容哲, 『중국 연변조선족 자치주 체육활동의 역사와 현황』, 서울: 대경, 1996, 34쪽. 단오절에 학생체육대회와 별도로 씨름과 그네뛰기가 언제부터 개최되었는가는 확인할 수 없지만 1935년 10월 추석에 간도체육회(1925년 용정에서 결성)가 주최한 간도체육대회를 보면 씨름과 그네뛰기가 경기종목에 포함되어 있었다. 대한체육회, 『대한체육회사』, 1961, 52쪽.

46) 축구대회는 제3회간도축구대회의 명칭을 사용했다. 6월 1일에 연길가북산소학교운동장에서 이미 제9회 전간도축구대회가 개최되었다. 용정에서 축구대회가 개최된 것은 용정이 교육도시(學都)로 참가단체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었기 때문이기도 했다. 『만선일보』 1940년 6월 7일자, 5면.

47) 『만선일보』에서는 신경단오절운동회 소식을 가장 자세하게 보도하였다.

48) 이는 단오절운동회 직전에 결성된 계림분회의 직장반의 하나인 미나카이(三中井)반의 결성식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계림분회 미나카이반은 미나카이백화점의 조선인 종업원 90여명으로 결성되었는데, 결성식은 1940년 6월 2일 오후 7시 30분에 협화회관(대동대가 소재)에서 거행되었다. 결성식은 일만양국기에 대한 경례, 국가합창(일만), 목도 등의 순서로 진행될 예정이었다. 『만선일보』 1940년 6월 2일자, 7면.

톤, 반대항릴레이단체(100미터릴레이)에 대한 우승배와 우승기수여식을 거행했다.

반대항릴레이는 관리소비조합반이 1등, 미나카이(三中井)반이 2등, 교륜반이 3등을 차지했다.⁴⁹⁾ 8백미터릴레이는 신경공대(원문은 학원)팀이 1등, 신경실무학교팀이 2등, 군관학교팀이 3등을 차지했다. 마라톤은 5등까지 시상했는데 신경공채주식회사에 근무하는 사람이 1등을 차지했고, 씨름은 흥업은행에 근무하는 사람이 근무하는 교륜반원이 1등을 차지했다. 가장 인기 있는 종목인 그네뛰기에는 300여명의 선수가 참가하여 당일 경기를 끝내지 못하고 다음 날로 연기했다. 다음 날 오전 9시에 전날 선발자 30명이 우승을 다투었다. 우승자는 작년도 우승자이기도 한 평천소일(平川昭一)씨 부인이 차지했다.⁵⁰⁾ 기록을 보면 1등은 16미터, 2등은 15.91미터, 3등은 15.90미터, 4등은 15.68미터였다.⁵¹⁾

신경의 단오절운동회에서 폐회식 행사가 있었는데는 확인할 수 없다. 춘화시민대운동회의 예를 보면 오후 7기에 육상경기, 씨름, 그네뛰기를 모두 마치고 씨름, 그네뛰기, 마라톤 시상식을 가진 다음 만세3창을 하고 폐회했다고 한다.

1940년 신경의 단오절운동회에는 만수천명의 계림분회원이 참가했다고 한다. 이는 계림분회원과 그 가족(사실상 신경의 전체 조선인)이 모두 참가했다는 것이다. 이는 물론 과장일 것이다. 1939년 같은 장소에서 개최된 단오절운동회에서는 5천 내지 6천명이 참가했다고 한다.⁵²⁾ 단오절운동회의 관중석에는 경성의 중등

중학교수학여행단 유지 등 외부에서 온 조선인도 포함되어 있었다.⁵³⁾ 단오절인 6월 10일은 월요일이었지만 조선인은 이날을 사실상 공휴일로 사용하였음을 알 수 있다.

춘화의 경우는 원래는 6월 10일 개최하기로 했지만 우천으로 이틀간 연기하고 6월 12일 개최했다(이는 연길의 건국대운동회의 경우와 같았다. 지역에 따라서는 춘화와 같이 단오절운동회가 연기되어 개최되기도 했을 것이다). 춘화의 운동회에는 일반 선수와 수백명의 남녀학생이 참가했으며 춘화국민우급학교의 국민체조와 여학생의 율동 유희 공연이 있었다고 한다. 이를 보면 건국대운동회(제9회라는 것도 건국대운동회와 관련이 있다) 유형인 것으로 보이지만 경기종목(특히 시상 종목에서의 씨름, 그네뛰기, 마라톤)을 보면 건국대운동회와 단오절운동회의 통합형, 사실상의 단오절운동회임을 알 수 있다. 이 운동회에는 함북 경흥을 위시하여 도문, 왕청 등 각지에서 모여들었다고 한다. 곧 관중으로는 인근 지역의 조선인들을 포함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렇게 모여든 조선인들은 운동회를 구경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술을 마시면서 일종의 축제판 또는 난장판으로 만든 모양이다. 이에 대해서 만선일보에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⁵⁴⁾

대체 우리의 차종 행사 중에는 매양 술이 상반하는 것이고 이로 말미암아 과음하는 자가 있게 되어 마침내 추태를 연출하는 자까지 나타나 행사 그 자체까지 유종의 미를 거두지 못하게 하는 일이 과거에 적지 않았다.

49) 지역별분회인 관성자반도 참가하였지만 등외에 들지 못한 것인지 참가하지 않았는지는 확인할 수 없다.

50) 신경운동회 수상자 중에서 창씨개명을 한 유일한 경우이다. 이 경우에도 다시 이전의 이름을 밝혀놓았다.

51) 『만선일보』 1940년 6월 12일자, 7면. 이 그네뛰기의 기록은 대단한 것이다. 한 예로 1935년 9월에 연길에서 개최된 간도체육운동대회에서 우승 기록은 12.8미터였다. 朴革友·金容哲, 전계서, 52쪽.

52) 『만선일보』 1939년 12월 21일자, 2면.

53) 『만선일보』 1940년 6월 12일자, 7면.

54) 『만선일보』 1940년 5월 28일자, 1면.

〈표 7〉 협화회조선인분회의 조직기구

신경	계림분회	서무부, 선덕달정부, 후생부, 동원훈련부, 문화부(문예반, 연극반, 서무반), 체육부
하얼빈	금강분회	총무부, 정무부, 지도부, 훈련부, 문화부, 후생부, 기획부
목단강	제4분회	정치, 후생, 교화, 사회, 선전, 체육
안동	민회분회	총무, 교화, 훈련, 사회

출전: 『만선일보』, 1940년 1월 20일자, 21일자, 23일자, 24일자, 25일자, 27일자, 2면.

5. 공동체의 공동체: 협화회조선인분회와 만선일보

〈표 6〉 단오절운동회의 경비와 인원

경비	신경	씨름 1등에 100원, 그네뛰기 1등에 50원, 마라톤 1등에 40원(각각 부상으로 만선일부사가 우승배 기준), 800미터릴레이 1등에 15원, 반대항릴레이 1등에 15원(각각 부상으로 삼일상회가 우승배 기준)
	집안	씨름부 1등 농우 외 다수, 그네뛰기부 1등에 옷 한 벌 외 다수
	연통산	씨름 1등에 200원(5등까지 시상), 그네뛰기와 마라톤 1등에 30원(각각 5등까지 시상)
	길림	씨름부에 500원, 그네뛰기부에 300원, 장비에 200원
	통화	씨름 1등에 황소(大牛), 2등에 50원, 3등에 시계, 그네뛰기 1등에 양장 한 벌, 2등에 차(茶)단스, 3등에 경대
	안동	상금 500원
	연길	2,000원
	회덕	350원(분담금)
	춘화	그네뛰기부 1등-4등, 씨름부와 마라톤 1등-5등 시상
인원	신경	신경에서는 대회장, 부대회장, 총무부(서무계, 회계계, 구호계, 경호계(실무학교청년단)), 시상부, 접대부, 설비부, 경기부(심판계, 출발계, 소집계), 씨름부(심판계), 그네뛰기부(심판계), 기록부, 사진반(대화 사진관)
	길림	회장(1명), 부회장(1명), 총무(2명), 설비 및 정리계(11명), 시상계(24명), 경호계(6명, 소년단(조양축구단)), 위생계(소년단), 기록 및 시보계(9명), 심판계(심판장(1명), 씨름부(5명), 그네뛰기부(11명), 진행계(2명), 연락계(2명)), 모두 84명
	용정	축구대회는 회장(1명), 부회장(3명), 총무(2명), 설비(3명), 주심(5명), 선심(8명), 기록(2명), 계시(3명), 경리(6명), 의사(4명), 안내(4명), 씨름대회는 상담역(6명, 부대장 등 일본인), 회장(1명), 부회장(3명), 총무(2명), 서무(3명), 시상(6명), 심판(6명), 접대(13명), 위생(4명), 경호(음식조합원)
	교하	회장, 부회장, 총무, 기타 20명
	돈하	회장, 부회장, 씨름부(사령부, 사무부, 설비부, 심판부, 시상부, 경호부, 접대부, 구호부), 그네뛰기부(심판부, 지도계), 모두 50명

단오절운동회의 주최자를 보면 협화회(신경, 봉천, 회덕, 대둔촌, 하얼빈, 오상, 반석, 영구, 춘화), 협화회·체육회(연길, 용정, 명신촌), 체육회(길림),⁵⁵⁾ 기타로 구분할 수 있다. 기타는 시민(연통산), 신문사(집안, 개원), 기원2천6백년경축위원회(통화), 조선인(원문은 선계)청년회(돈화) 등이었다. 단오절운동회를 주최하기 위해서는 경비와 인원이 필요했다. 몇몇 단오절운동회에서 소요된 경비와 인원(임원단과 진행요원)을 보면 다음과 같다.

단오절운동회를 개최하기 위해서는 경비와 인원이 조달되어야 했는데, 이를 조달한 것이 각지의 협화회조선인분회였다(연길현의 경우는 현협화회). 협화회조선인분회의 조직기구의 예를 보면 다음과 같다.⁵⁶⁾

협화회조선인분회는 ‘조선인민회’가 협화회에 흡수되면서,⁵⁷⁾ 기존의 직업별분회 외에 민족별분회로서 조직되었다가, 1938년 1월에 지역별조직 원칙을 도입하게 되어 지역별분회로 흡수되었다.⁵⁸⁾ 이후 조선인분회는 조선인보도부라는 명칭으로 개조되게 되었다.⁵⁹⁾ 위 기사에서도 ‘협화회(지역)조선인보도부’의 명칭으로 소개되었다. 그러나 1943년 3월까지 신경, 하얼빈, 영구에서는 조선인분회 명칭이 남아 있었다.⁶⁰⁾ 지역별분회인 목단강시제4분회가 조선인

보도기구로 되었던 것은 “목단강시의 조선인의 거의 전부가 동시의 서부인 서장안가에 밀집되어 있으며 또 그 지대에는 조선인 이외의 거주자가 극소수이기 때문에 특별히 조선인만의 기구를 조직하지 않아도 분회조직의 원칙인 지역별분회를 그 지대에 조직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조선인의 선덕달정(宣德達情)의 기능을 발휘할 수가 있기 때문이다.” 목단강시제4분회의 분회원 수를 보면 조선인이 1002명, 일본인이 13명, 중국인이 130명이었다.

각 조선인분회의 활동에서 체육행사가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다. 예를 들면 민회분회 시기에 연중행사로는 조선인시민운동회(단오절운동회를 지칭함), 농구대회, 연말 구제 등이 가장 혁혁한 성과를 내었다고 하고, 1939년 계림분회체육부 행사로는 길림축구대회 우승, 영사관구내 정구 코트 개방, 정월달 하이킹 거행, 분회대항전(건국운동회를 지칭함) 출장, 단오시민대운동회 개최 등이 있었다. 안동시의 예를 보면 전체 수입 6,240원 가운데서 단오절운동회 비용으로 500원을 지출하였다. 이 비용은 기부금에서 충당하였다(연말구제금은 700원이었다).⁶¹⁾

1940년 추석 무렵에는 금강분회가 전만축구대회를 개최하고, 길림시제1협화구락부운동부

55) 명예회장은 길림시시장이었다.

56) 각지의 조선인 분회의 설립 시기를 보면 신경은 1936년 9월, 하얼빈은 1937년 4월, 목단강은 1937년 10월, 안동은 1936년 9월에 각각 설립되었다.

57) 장춘(신경)조선인민회는 1919년에 설립되었다.

58) 김경일·윤취탁·이동진·임성모, 2004, 217-218쪽을 참조하라.

59) 다음의 진술을 참고하라. “협화회하얼빈조선인분회라고 칭하였는데 그후 조선인분회하함은 분회조직업적에도 반할뿐더러 대외적으로 재미없으므로 현금의 금강분회로 개칭한 것이다.” “종래의 조선인분회가 지역별분회조직에 의하여 직장·직업별분회와 함께 해산한 뒤를 이어 새로운 신념 밑에 출현한 것이 곧 이 안동조선인보도부다. (...) 환언하면 안동시의 조선인은 지역적으로 한 집단을 이루지 못한 이동부락과 같은 상황이므로 이들을 단순한 지역별분회의 조직분자로 방임해 둔다면 세풍사정·풍습·언어가 다른 조선인을 지역별분회의 회원으로 조직하여 그 사명을 다하게 하는 데 큰 곤란이 있을뿐더러 오히려 회공작의 침투상 지장이 없지 않을 수 없는 상태이므로 이 결함을 보충하기 위하여 조직된 기구다.”

60) 滿洲帝國協和會中央本部調査部, 『國內に於ける鮮系國民實態』, 1943, 59쪽.

61) 나머지 수입 내역은 다음과 같다. 본부보조금 3,720원, 찬조회원비 1,200원(200명이 연 6원), 사업수익금 120원(압강관현악단 방송수당 월 10원), 압강관현악단(협화관현악단)은 협화회안동시조선인보도부의 부속기관이었다. 이외에도 협화극단, 국방부인회, 압강청년단, 압강야구단, 압강농구단이 있었다. 계림분회의 협화청년단, 국방부인회, 실무학교, 협화새끼꼬기조합, 의무부공대 등이 있었다(협화문화부·체육부 등도 있었다고 하는데 이는 계림분회문화부·체육부와 중복된다).

가 길림성축구대회를 개최했다.⁶²⁾ 길림시제1협화구락부와 봉천, 회덕, 오상, 반석에서 단오절 운동회를 주최한 협화회 조직은 사실상 조선인 보도부였을 것으로 추측된다(안동의 경우는 주최자를 거명하지 않았지만 협화회조선인보도부였을 것이다). 그리고 대둔촌과 오상, 반석의 지역별반은 조선인이 다수를 차지하였기 때문에 단오절운동회를 주최할 수 있었을 것이다.⁶³⁾ 현본부에서 조선인이 다수를 차지한 경우로 간도성의 연길현, 화룡현 등이 있었고, 도시의 지역분회에서 조선인이 다수를 차지한 경우로 목단강시서구(西區)가 있을 뿐이며, 나머지는 민족별분회(나중에는 조선인보도부)의 형식으로 조선인의 조직이 존재할 수 있었다. 이러한 조직이 필요한 이유는 조선인을 협화회로 통합하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만주국이라는 상상의 공동체를 창출하기 위해서였다.

1940년 10월 현재 신경에서의 민족별 협화회가입율을 보면 조선인이 35.0퍼센트, 일본인이 32.9퍼센트, 중국인이 13.2퍼센트로 조선인의 협화회가입율이 가장 높았다.⁶⁴⁾ 이는 협화회조선인분회가 조선인의 구심점으로 역할을 했음을 말하는 것이다. 그 하나의 예가 단오절 운동회를 주최한 일이었다.

조선인민회 시기와는 달리 협화회조선인분회 시기에는 전국적인 조직이 만들어지지 못했다. 이는 협화회조선인분회 시기에 조선인이 민족

공동체를 상상하기가 더욱 어려웠음을 뜻한다. 각 지역의 조선인 조직은 그 지역 내의 조선인의 구심점이 될 수는 있을 뿐이었다. 그리고 아무리 체육행사에 많은 조선인이 참가한다고는 해도 그것만으로 조선인 공동체, 나아가 민족이 상상될 수는 없었다. 앤더슨에 의하면 조선인 체육행사라는 ‘동시성’의 개념이 민족 사이에서 공유될 수 있어야 했다. 앤더슨은 이를 위한 수단으로서 신문과 소설을 들었는데(이 배후에는 인종차별주의가 있다), 만주국 조선인에게 이러한 매체가 하나 있었다. 그것은 만주국 유일의 한글 신문인 만선일보였다. 만선일보는 일간지였기 때문에 전만조선인민회연합회에서 발행한 월간지인 『전만조선인민회연합회회보』 보다 민족공동체를 상상하게 하는데 더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었다.⁶⁵⁾

단오절운동회가 운동회에 참가한 조선인에게만 공동체로서 실감되는 것이 아니라 운동회에 참가하지 않은 조선인에게도 공동체로서 실감되기 위해서는, 그리고 그 공동체가 각 운동회 단위로 상상되는 것이 아니라, 단오절운동회 전체로서 상상되기 위해서는 각지의 단오절운동회 소식이 만주국 조선인에게 알려져야 했다. 다시 말하면 단오절운동회 소식이 신문, 잡지, 라디오와 같은 대중매체를 통해서 보도되어야 했다. 단오절운동회 소식은 만선일보에서 가장 자세하게 보도되었다.⁶⁶⁾

62) 「만선일보」, 1940년 9월 2일자, 2면; 동 4일자, 4면. 길림제1협화구락부는 1940년 7월 중순에 결성되었고, 8월 31일에는 다시 협화제1구락부상공반을 결성했다. 「만선일보」, 1940년 9월 3일자, 7면.

63) 길림시 조선인은 모두 1만2000명이었는데 그 가운데 4분의 1인 3000명이 밀집해 있었던 영정(永町; 만선일보에서는 榮町) 분회는 제1반(일본인), 제2반(조선인), 제3반(중국인)과 같이 지역분회 내에서 다시 민족반을 두었다. 三刀屋和人, 「半島少年隣組常會」, 「協和運動」, 6-7, 1944, 27쪽; 「만선일보」, 1940년 1월 5일자, 2면. 계림분회에서는 지역별반으로 관성자반, 직업별분회로는 교원반, 직장별분회로는 관리소비조합반, 삼중정반이 있었다.

64) 1940년 10월 현재 협화회수도본부회원 중 조선인의 수는 5,750명이었고, 일본인의 수는 36,185명, 중국인의 수는 56,305명이었다. 「만선일보」, 1941년 1월 1일자, 申奎燮, 2002, 153쪽에서 재인용. 1940년 10월 1일 현재 조선인 16,424명, 일본인은 110,138명, 중국인은 426,789명이었다. 國務院總務廳臨時國勢調查事務局, 「(康德七年)臨時國勢調查報告 第一卷 全國編」, 1943, 175쪽.

65) 전만조선인민회연합회에 대해서는 김태국, 「만주지역 ‘조선인민회’ 연구」, 국민대국사학과 박사학위논문, 2001을 참조하라.

66) 물론 만선일보의 구독자가 몇 명이나 되었는가 하는 것이 중요하다. 신문과 비교해서 라디오가 더 중요한 역할을 할 수도 있었다. 그러나 1938년 4월부터 연길방송국에서 조선어 방송을 실시했지만 연길방송국의 청취자는 1,500명에 불과했다. 신경방송국과 안동방송국에도 조선인 아나운서가 1명씩 배치되었다가 1940년 1월 조선인 방송이 폐지되었다. 고영일 외, 「중국抗日戰爭과 조선민족」, 백암, 2002, 212쪽, 「만선일보」, 1940년 1월 10일자, 2면; 8월 24일자, 3면.

만선일보가 단오절운동회에 대한 광고를 실은 경우는 모두 주최자나 후원자로 참가한 경우였다. 광고 자체가 일종의 후원이었을 것이다(신경에서는 부상으로 우승배 기증을 포함하였다). 집안과 개원(조선일보지국과 공동으로)을 제외하면 모두 만선일보사(지사·분사·총지국·지국)가 후원(봉천, 반석, 통화는 다른 신문사지국, 체육회 등과 공동으로)을 했다.⁶⁷⁾ 만선일보가 단오절운동회를 보도한 경우는 모두 만선일보사(지사·지국)가 보도원이었다. 만선일보가 단오절운동회를 광고(주최 또는 후원)하거나 보도한 것은 단오절운동회가 구독자를 늘릴 수 있는 절호의 기사거리였기 때문일 것이지만 만선일보를 통해서 만주국의 조선인(나아가 만선일보의 구독자인 조선 내지의 조선인들을 포함하여)들은 ‘동시성’의 주최로서의 민족을 상상할 수 있게 되었다.

체육행사가 ‘동시성’을 상상할 수 있는 좋은 기사거리가 된다는 것에 대해서 일본제국과 만주국도 잘 알고 있었다. 이것이 일본제국과 만주국에서 체육행사가 성행한 하나의 이유였다. 그러나 이 체육행사가 하나의 공동체를 상상하는 것은 아니었다. 한 체육행사에서 지역과 국가, 민족과 국가가 동시에 상상될 수도 있지만 만주국과 같은 허구의 국가에서는 지역과 국가, 민족과 국가가 분열되기가 쉬웠다. 곧 공동체들이 경합을 벌였다.

만선일보에서 보도된 체육행사에는 ‘동아신질서’, ‘만주국’, ‘간도’, ‘조선인’ 등의 공동체가 나타났다. 이 가운데서 만선일보가 다른 신문과 달리 더 자세하게 보도한 것은 ‘조선인’ 공동체로서의 체육행사였다. 1940년에 개최된 체육행사 가운데서 이러한 예에 속하는 기사로는 다음과 같은 예가 있었다.⁶⁸⁾

- ① 2월 13일 오전 8시 반부터 봉천국제경기장에서 제1회전만도시대항빙상(활주)경기가 개최되었다. 개회식은 일만양국기계양, 궁성요배, 기원2천6백년봉축국민가제창의 순서로 진행되었다. 경기는 여자 500미터부터 시작되어 박윤철(무순)이 1500미터, 3000미터, 1만미터에서 우승했다. 남자부는 42.5점으로 무순이 제패하고 여자부는 예상대로 봉천이 45.5점으로 우승했다.
- ② 목당강장안우급학교에서 황기2천6백년기념대운동회를 개최했다. 운동회는 입장, 교기입장, 일만국기계양, 황거 및 제궁 요배, 일만양국기합창, 학교장, 건국체조, 운동회가, 연기, 우승기수여 등의 순서로 진행되었다. 경기 종목은 성내 각 초등학교대항릴레이전을 위주로 하였다.
- ③ 1940년 8월 3일 신경일일신문사에서 주최한 제1회 신경시민축구대회에 계림분회팀이 참가했다. 축구팀은 감독, 매니저, 코치, 선수(주장) 등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 ④ 9월 15일 오전 10시부터 중앙은행 구장에서 거행된 전만중등학교축구대회에서 간도의 광명국교가 봉천제5중학, 신경공학을 물리치고 우승했다.
- ⑤ 아성현국민우급학교후원회에서 신규사업으로 황기2천6백년봉축대운동회를 개최하기로 하고 사업비로 400원을 편성했다.
- ⑥ 9월 15일(음력 8월 15일) 오전 9시부터 동영학교에서 제6회전길림선계소학생연합대운동회를 거행할 예정이다. 남자부는 100미터, 200미터, 400미터, 400미터계주, 여자부는 50미터, 100미터, 200미터계주로 작년 우승교인 화전(樺甸)을 비롯하여 수십여학교가 참가할 예정이다.

67) 안동시의 경우는 협화회시본부가 후원자였다. 『盛京時報』 1940년 6월 12일자, 5면.

68) 『만선일보』 1940년 2월 13일자, 2면; 6월 1일자, 5면; 7월 31일자, 7면; 8월 28일자, 4면; 9월 2일자, 4면; 9월 4일자, 4면; 9월 10일자, 4면; 9월 17일자, 2면; 9월 26일자, 4면.

- ⑦ 신경영락심상고등소학교에서 제9기추기운동회를 9월 14일에 봉천서탑심상고등소학교에서 추계운동회를, 9월 16일에 금강국민우급학교에서 제4회추계대운동회를 각각 개최했다.
- ⑧ 봉천국제운동장에서 전만개인정구대회가 개최되었다. 주최측과 선수측 400여명이 입장했다. 그러나 관중이 없어서 정각을 두시간이나 지나서 경기를 시작하였고 심판을 맡은 분이 출석하지 않는 불상사도 있었다. 1년을 두고 몇 번 얻어지지 않는 조선사람의 행사에 봉천의 조선사람이 이 같이도 무심한가?⁶⁹⁾

단오절운동회 다음으로 중요한 체육행사는 조선인초등학교의 운동회였을 것이다. 만선일보에서는 1940년의 신경의 영락심상고등소학교 운동회, 하얼빈의 금강국민우급학교운동회 소식을 보도했다. 체육행사 자체가 국가라는 공동체를 상상하는 경우에도 만선일보의 보도의 초점은 조선인이었다(조선인이 우승한 경우에 그것이 보도 가치를 가지게 되었다). 이러한 초점은 상대적인 것이기는 했다. 가령 ‘동아신질서’를 상상하는 경우에는 만주국이 보도의 초점이 되었고, ‘조선인’을 상상하는 경우에는 지역이 보도의 초점이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족은 ‘동시성’을 공유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상상의 공동체였다. 협화회조선인분회, 조선인교회,⁷⁰⁾ 조선인초등학교, 기타 조선인음식점·카페를 포함하는 조선인상회 등의 조선인의 실제적 공동체가 존재하였던 것, 그리고 만선일보라는 독자공동체(상상의 공동체로서의)가

존재했던 것은 조선인이 하나의 문화공동체(언어공동체를 기반으로 하는)를 이루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더욱이 만주국 조선인에게 시간은 추상적인 시간이기만 한 것은 아니었다. 아직도 조선인에게는 시간은 문화적 의미망으로 존재했고 그것을 공유하기란 조선인이라는 문화공동체 안에서만 가능했다.

6. 결 론

1940년 단오절은 ‘시의 기념일’이었다. 이 기념일은 일본이 1922년에 누각이라는 시계를 만든 덴지(天智) 천황을 기리고 시간을 엄수하자는 취지로 만든 것이다.⁷¹⁾ 이 기념일은 그 해에 조선에도 적용되어 총독부가 시간엄수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했다. 이 기념일이 그대로 만주국에서도 적용되었다. 이 날 봉천시에서는 시계상조합가맹점이 시민들에게 시간을 정확하게 맞추어 주고 각 회사와 공장에서는 정오에 사이렌을 일시에 울리기로 했다.⁷²⁾

이 날 시간과 관련되는 또 하나의 행사가 있었다. 만주국 전역에서는 라디오방송에서 일본을 방문 중인 만주국 황제가 신궁을 방문하는 시각(오전 11시 11분과 오후 1시 54분)을 알리면 요배를 드리기로 되어 있었다. 이에 신경에서 단오절운동회를 하던 계림분회원들은 이 시각에 경기를 중단하고 1분간 묵도를 드려야 했다.⁷³⁾

만주국 각지에서 조선인이 단오절운동회를 개최했듯이 중국인은 같은 시기에 묘회(廟會)의 하나인 량량제(娘娘祭)를 개최했고,⁷⁴⁾ 앞서 지

69) 조선인들이 정구경기에 대해서는 그다지 관심을 보이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 조선인이라고만 했지만 조선인 내부에서 다시 계급(또는 지역)적인 구분이 있을 것이다. 곧 계급(또는 지역)에 따라서 체육 취향이 달랐을 것이다.

70) 김정일·윤휘탁·이동진·임성모, 2004, 250-252쪽을 참조하라.

71) 정상우, 「개항 이후 시간 관념의 변화」, 『역사비평』 2000년 봄, 196-197쪽.

72) 『만선일보』 1940년 6월 10일자, 3면.

73) 『만선일보』 1940년 6월 12일자, 7면.

74) 길림시의 북산(北山)량량제는 6월 1일부터 매일 오전 10시에 개최되었는데 매일 운집한 관중이 수십만명에 달했다고 한다. 『만선일보』 1940년 6월 8일자, 4면.

적한 대로 봉천시에서는 만화친선장기경기대회가 개최되었다. 이처럼 만주국에서는 시간의 의미를 전유하기 위한 전쟁이 벌어지고 있었다. 1940년 6월에 개최된 세 체육행사에서는 그 전쟁의 주체는 일본제국, 만주국, 민족이 그 주체였다. 만주국을 허구의 국가라고 하면 전쟁은 실제적으로는 일본제국과 중국민족, 그리고 일본제국과 조선민족간의 전쟁이라고 해도 좋을 것이다.

조선인은 동아경기대회에서는 존재감을 확인하기가 어려웠다. 조선인이 일본의 대표선수로 참가할 수는 있었지만 그 경우에도 학교 또는 도시의 대표로 참가했다. 건국대운동회는 각 지역별로 개최되었으므로 지역에 따라서 조선인의 존재감이 다르게 나타났다. 조선인이 다수를 차지하는 연길현과 같은 경우에는 건국대운동회 자체를 단오절운동회와 통합적으로(실제적으로는 건국대운동회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않음) 건국대운동회와 단오절운동회를 이원화하여 개최할 수 있었다. 조선인이 그 지역에서 덜 소외될수록 건국대운동회와 별도로 단오절운동회를 개최할 필요가 덜했다. 그렇다고 조선인이 그 지역에서 소외될수록 단오절운동회를 개최할 수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 조선인이 단오절운동회를 개최하려면 그만큼 역량이 있어야 했다.

조선인이 지도 민족도 다수 민족도 아닌 처지에서 조선인의 민족축체로서의 단오절운동회를 개최할 수 있었던 것은 조선인의 힘을 조직할 수 있는 구심점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것은 협화회조선인분회와 만선일보였다.

이러한 주장은 논란이 될 수 있다. 사실 이들은 친일파로 분류될 수 있는 조직이었다. 이들은 조선인을 만주국, 나아가 일본제국에 통합하기 위한 수단으로 만들어졌다. 협화회조선인분회의 전신인 조선인민회는 일본영사관(조선총독부 파견부서)에 의해서 만들어진 친일단

체이고 만선일보도 친일언론이었다. 말하자면 이들은 일본제국을 공동체로 상상하기 위해서 만들어졌다. 그러나 본문에서 살펴보았듯이 이들은 실제로는 조선민족을 공동체로 상상하게 하는 데 기여했다. 이러한 역설적인 결과는 일본이 3·1운동 후에 실시한 문화정치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났다. 만주국에 협화회조선인분회와 만선일보라는 합법적인 조직과 언론이 존재했던 것 자체가 만주국에서 조선인이 쉽게 일본제국에 통합되지 않았음을 반증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협화회조선인분회와 만선일보는 한편으로는 자신의 후원자이고 감독자이기도 한 일본제국과의 정치를,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자신의 회원이고 독자이기도 한 조선인과의 정치를 이중적으로 수행해야 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를 ‘이중의 정치’라고 할 수 있겠다. 이 때문에 이들은 한편으로는 일본제국을 상상하는 정치를 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조선민족을 상상하는 정치를 수행했다. 이 가운데서 조선인에게 더 많은 효과를 미친 것은 후자였다.

이중의 정치가 같은 정도로 수행된 것은 아니어서 어떤 분회-회덕현협화회본부선계지도위원회와 같이-는 일본제국을 우선하였고 또 어떤 분회는 조선민족을 우선하기도 했으며, 어떤 조선인은 민족보다 일본제국을 공동체로 더 강하게 상상하기도 했을 것이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보아 민족이 공동체로서 상상하기에 더 쉬웠던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었다. 그 이유는 무엇보다도 민족이 이미 ‘언어공동체’, 나아가 ‘문화공동체’로 자리를 잡고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협화회조선인분회와 만선일보가 민족이라는 공동체를 상상하는데 기여한 것이 반드시 일본제국을 국가로 상상하게 하는 데 기여하는 것과 모순이 되는 것은 아니었다. 양자는 결합될 수도 있었다. 이러한 점에서 협화회조선인

분회의 이중의 정치를 ‘식민지 코포라티즘’이라는 개념으로 설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⁷⁵⁾ 여기에 대해서는 후속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국 문

고영일 외. 2002. 『중국抗日戰爭과 조선민족』. 백암.
 金瑗根. 1935. 「단오명절에 관한 이저것」, 『신가정』 1935년 4월.
 김경일·윤휘탁·이동진·임성모. 2004. 『동아시아 민족이산과 도시』. 역사비평사.
 김태국. 2001. 「만주지역 ‘조선인민회’ 연구」. 국민대국사학과 박사학위논문.
 다카시 후지타니. 한석정 옮김. 2003. 『화려한 군주』. 이산.
 대한체육회. 1965. 『대한체육회사』.
 동아일보사. 『신가정』.
 滿鮮日報社. 『滿鮮日報』.
 박종서. 1998. 「한말 국가제사의 변화에 대한 사회학적인 연구」. 서울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朴權圭. 1998. 「추천의 유래와 변천에 관한 연구」. 『한국체육대학교논문집』, 제21집.
 베네딕트 앤더슨. 윤형숙 옮김. 1993. 『민족주의의 기원과 전파』. 서울: 나남.
 엘리스 캐시모어. 정준영 옮김. 2001. 『스포츠, 그 영광의 사회학』. 한울.
 역사문제연구소. 1998. 『인물로 보는 친일과 역사』. 역사비평사.
 윤휘탁. 1996. 『일제하 ‘만주국’ 연구』. 일조각.
 이학래 외. 1994. 『한국체육사』. 서울: 지식산업사.
 林革友·金容哲. 1996. 『중국 연변조선족 자치주 체육활동의 역사와 현황』. 대경.

정준영. 2002. 「19세기말 20세기 초 체육정신(athleticism)의 형성과 변화」. 2002년 한국사회사학회 추계학술대회 발표문.
 최석영. 2002. 「한말 일제 강점기 국가제례 공간의 변화」. 『한국사연구』 118.
 한석정·임성모. 2001. 「쌍방향으로서의 국가와 문화: 만주국관 전통의 창조, 1932-1938」. 『한국사학회』 35-3.
 흡스보움·랑거 편. 1995. 『전통의 날조와 창조』. 서경문화사.
 유명기. 2002. 「민족과 국민사이에서: 한국체류 조선족들의 정체성 인식에 관하여」. 『한국문화인류학』 35-1.
 정근식. 2002. 「근대적 시공간체제와 사회이론」. 『민족문화논총』 26.
 정상우. 2000. 「개항 이후 시간관념의 변화」. 『역사비평』 봄.
 임성모. 「제국의 교차로: 만주국-오키나와 비교 서설」, 『동아시아: 비교와 전망』 창간호, 2003

외 국 문

吉見俊哉. 1994. 「運動會の思想-明治日本と祝祭文化」. 『思想』, 1994-11.
 金子定一. 1940. 「半島人の美點と短所」. 『新滿洲』 4.
 滿洲帝國政府. 1969. 『滿洲建國十年史』, 原書房.
 滿洲帝國協和會中央本部調査部. 1943. 『國內に於ける鮮系國民實態』.
 牧原憲夫. 1994. 「萬世の誕生」. 『思想』, 1994-11: 118-136.
 三刀屋和人. 1944. 「半島少年隣組常會」. 『協和運動』 6-7.
 盛京時報社. 『盛京時報』.
 申奎燮. 2002. 「帝國日本の民族政策と在滿朝鮮

75) 이 개념은 Shin, Gi-Wook and Do-Hyun Han, "Colonial Corporatism: The Rural Revitalization Campaign, 1932-1940", 1999를 참고하라.

- 人」. 東京道立大學大學院 博士學位論文.
- 中村敏雄 外. 1978. 『スポ-ツナシヨナリズム』. 大修館書店.
- 解學詩. 1995. 『偽滿洲國史新編』. 人民出版社.
- Bailey, Peter. 1978. *Leisure and Class in Victorian England: Rational Recreation and the Contest for Control, 1830-1885*. London: RKP.
- Benjamin, Walter. 1973. *Illuminations*. London: Fontana.
- Bourdieu, Pierre. 1978. "Sports and Social Class." *Social Science Information*, 17.
- Gems, G. R. 2004. "The Athletic Crusade: Sport and Colonialism in the Philippines." *The International Journal of the History of Sports*, 21-1, January.
- Hall, Stuart and Tony Jepperson. (eds.) 1976. *Resistance Through Rituals*. London: Hutshinson.
- Hargreaves, John. 1986. *Sports, Power and Culture: A Social and Historical Analysis of Popular Sports in Britain*, New York: St. Martin's.
- Jones, F. C. 1949. *Manchuria Since 1931*. Oxford University Press.
- Lewis, J. D. & A. J. Weigart. 1981. "The structures and meanings of social-time." in J. Hassard (ed.). 1990. *The Sociology of Time*. London: Macmillan.
- Mandle, W. F. 1973. "Games People Played: Cricket and Football in England and Victorian in Late Nineteenth Century." *Historical Studies*, 15.
- Meller, H. E. 1976. *Leisure and the Changing City, 1870-1914*. London: RKP.
- Parry, J. 1984. "Sports and Hegemony." *Journal of Sports Philosophy*, 10.

Shin, Gi-Wook and Do-Hyun Han. 1999. "Colonial Corporatism: The Rural Revitalization Campaign, 1932-1940." In Shin, Gi-Wook and Michael Robinson eds. *Colonial Modernity in Korea*. Cambridge(Mass.) and London: Harvard University Asia Center.

Stoddart, Brian. 1988. "Sports, Cultural Imperialism, and Colonial Response in the British Empire." *Comparative Society and Social History*, 30-4.

Abstract

Between Nation and People: Manchurian State, Korean, Community shown in the three Athletic Meetings of 1940

Lee Dongjin(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Sociology)

Athletics is a daily activity and a political one at the same time. These two aspects of sports were also found in the three athletic meetings, the East-Asian Game, the Grand Athletic Meeting for National Founding (GAMNF) and the Dano Festival Athletic Meeting (DFAM: Dano festival is traditional spring holiday to celebrate the end of planting) that were held in Manchurian State in the 1940's. The political aspects were represented not only in the national ceremony performed in opening and closing ceremonies but also in the relationship between participants (players and spectators) in the sport activities. The athletic

meeting leads the participants to feel as one body rather than to feel being divided according to the team they belong to. Players sometimes become spectators and vice versa. Thus, it helps the participants to have experience in the real community and to extend this experience, creating an imagined one.

The GAMNFs were held to commemorate the 'national founding', thus creating the community of Manchurian State. Particularly in 1940's, they were also to create the regional community centering on the Japanese Empire in honor of the 26 hundredth anniversary of Japan. On the other hand, the DFAMs were held to create a Korean community through the celebration of traditional Korean festival days. There were various games such as field and track events and team sports in the GAMNFs, whereas the main games of the DFAMs were traditional Korean games like wrestling and swing competition.

However, all the regions did not hold both the games. Some regions held only the GAMNF, others held the GAMNF and the DFAM separately. There were also regions that hosted only the GAMNF where the DFAM was

simultaneously held, and in some regions a lecture meeting instead of the DFAM was held to strengthen the object of the GAMNF. These differences reflect the standing of the Koreans within each region. Yet, the sport meeting goes

further in its role than the reflection of a real community. It cemented the real community and furthered to create an imaginary one. Koreans participated in the DFAMs more than in the GAMNFs, which means that the concept of Chosun nation took precedence before that of Manchurian state both in the real and imagined communities.

It was due to the *Korean branch of Harmony Meeting* and *Manchurian and Chosun Daily Newspaper* that the DFAM saw such great successes. Korean communities could be consolidated through these organizations. They were pro-Japanese ones that were established to unify Koreans through the a state instead of ethnics, that is to say, through the community of Manchurian state rather than a Korean community. Koreans took part in the GAMNFs through them. These activities, on the contrary, resulted in the effect of strengthening Korean communities.

주제어 : 운동회, 민주국, 협회회조선인분회, 민선일보, 조선인, 공동체